

Factor Analysis of Buddhist Monastic Distance Education: Exploring Operational, Perceptual, and Improvement Factors

Kwanghyun Han (Ven. Cheong-La)¹, Sejin Chang^{2*}

¹Gwangmyeong Seon Center,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²National Kumoh University of Technolog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re-examines remote training for Buddhist monks as lifelong lear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Buddhist community. It analyzes program structure and key operational factors to suggest improvements, exploring monks' perceptions on program management, satisfaction, participation, effectiveness, and areas for improvement,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Contents] In 2023, a survey of 150 Jogye Order remote training participants examined four factors: program management, satisfaction, participation, and perceived effectiveness. Exploratory facto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effectiveness. Key improvement items were ident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ith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revealed five distinct perception groups among respondents.

[Conclusions] Remote training for Buddhist monks should support lifelong learning and leadership development, not just occupational skills. This study found tha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strongly influence perceived effectiveness, highlighting the need for engaging, practical teaching strategies. Five types of improvement needs emerge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lexible, tailored programs that reflect participant diversity. The findings offer concrete guidance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policies of Buddhist remote training programs.

[Keywords] Monastic Distance Educatio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article is a revised and condens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Sejin Chang (Research Professor, National Kumoh University of Technology)

E-mail : sejin.chang@outlook.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승려원격연수의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

한광현(청라)¹, 장세진^{2*}

¹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²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를 불교계 전문가 계속교육(CPE)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해당 연수가 지닌 구조적 특성과 운영상의 핵심 요인을 분석하여, 실천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과제 등 다섯 영역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항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2023년 조계종 법계 원격연수 참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등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만족도와 참여도는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선과제와 관련된 문항은 빈도분석을 통해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어서 R 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MDS)을 통해 응답자들의 인식 유형이 다섯 개 군집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승려원격연수는 직무훈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불교 지도자의 수행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계속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참여도와 만족도가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성적 몰입과 실천적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학습 전략의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개선 요구가 다섯 개 유형으로 구조화됨에 따라, 성별, 연령, 수행경력 등 이질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와 하이플렉스 기반의 유연한 운영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불교계 원격연수의 질적 개선과 정책 수립에 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승려원격연수, 전문가 계속교육, 요인분석, 군집분석, 대한불교조계종

I. 들어가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연수교육은 2010년 이후, 제도적·내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Jo, 2018). 기존의 승려연수교육은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종단 또는 개별 사찰 주관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3급·2급·1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의무 이수 요건으로 제도화되면서, 계속교육 체계 내에서 정비되었다(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7). 이는 출가 수행자의 계속교육 체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승려연수교육은 학습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경전 학습과 명상 실천, 계율 내면화를 통합한 불교 고유의 학습-수행 구조를 지닌다(Park, 1995; Park, 2015). 또한, 출가 수행자이자 공동체의 지도자인 스님들은 전통적 승려교육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Shin, 2020).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승려연수교육의 운영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 연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 과정인 법계연수를 원격연수로 전환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전 과정을 비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21,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 ‘승려연수교육’의 형태를 ‘승려원격연수’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환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는 교수 설계의 체계성, 교육 자료의 다양성과 접근성, 학습 관리 시스템의 조직적 운영, 그리고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Lee, 2020a, 2020b).

이와 같은 요구를 고려할 때, 승려원격연수는 의무적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 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E)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계속교육은 인간이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지속함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총체적 학습 체계를 의미하며(Jarvis, 2004; Illeris, 2007), 승려원격연수는 이를 불교적 맥락에서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수행자이자 지도자인 스님들의 지속적인 정체성 강화, 시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회와의 소통 역량 함양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자기주도 학습의 통합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은 계속교육의 주요 개념들과 이론적 연계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승려원격연수에 참여하는 승려들은 연령, 국적, 수행 경력, 학력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지만, 승려들의 교육 수준과 학습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eop, 2010; An, 2021). 또한 법계연수가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필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자의 몰입도, 만족도, 참여 의지, 교육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승려원격연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 Yoo, 2016; Simonson et al., 2019) 그러나 콘텐츠의 제한, 상호작용 부족, 기술적 제약, 그리고 반복적인 구성 방식은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승려원격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선과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삶과 수행, 전문성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설계와 운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운영 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 과제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각 영역별 문항에서 나타나는 공통 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현황 진단에 그치지 않고,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 구성 요소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불교계 승려원격연수의 질적 개선과 학습자 중심 교육 설계를 위한 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승려원격연수의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과제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도출된 주요 요인들은 승려원격연수의 질적 개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승려연수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승려연수는 불교 승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교육 활동으로, 수행자의 전문성, 지도력,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수행과 교육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Education Cente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22). 제도 정비 이후 승려연수는 자격 이수를 위한 요건뿐만 아니라, 승가 고유의 수행 전통과 현대 사회에서의 실천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계속교육의 전략적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7). 오늘날의 승려연수는 단일 강좌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행 실천을 기반으로 한 순례형 프로그램, 현대사회 이해를 위한 인증교육, 수행 경력에 따라 구조화된 계위별 맞춤형 연수 등으로 다층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학과 수행, 사회적 실천이 통합된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한다(Ji, 2013).

조계종 승려연수는 승려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천(人天)의 스승으로서의 지혜와 원력을 함양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포함되며, 공감·소통·관계 회복,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된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불교의 깨달음 간 융합 가능성 탐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각을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코칭 교육,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포교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Lee, 2009; Nakagawa, 2015; Boil, 2020;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비실시간 중심의 원격연수가 확산되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교수설계와 상호작용, 학습 참여 측면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Lee, 2020a, 2020b). 승려연수는 자격 이수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수행자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으로서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승려연수는 계속교육(CPE)의 핵심 가치-삶의 전 주기에 걸친 성찰과 실천의 통합-와 밀접하게 관련된다(European Commission, 2001; Jarvis, 2004). 또한 승려는 정신적 수행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종단 내 역할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Jarvis, 1995; Illeris, 2007; Pansa et al., 2022). 이는 불교적 계속교육의 본질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속교육의 맥락에서 승려연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Johnson, 2002; Hobhouse, 2024; Chahuán-Jiménez et al., 2025). 첫째, 수행 중심의 종교 교육이 비형식 학습을 포함한 체계적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모델로 기능하며, 이는 현대 불교 교육의 제도화에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불교계 내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문화와 교육의 질 관리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출가자의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촉진하는 이중적 효과를 창출한다. 셋째, 승려연수는 디지털 기반 원격연수 도입과 개선을 통해, 전통 종단교육이 시간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개방형 학습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승려연수는 불교계 계속교육 체계의 주요 사례로 기능하며, 향후 종단의 교육정책 수립과 학습자 중심 교육 시스템 정비에 대한 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려연수를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교육적 의미와 제도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승려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과 실증적 검토 과제를 제시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둔다.

2. 원격연수의 개념과 특성 및 운영상 과제

원격연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비실시간 상호작용 도구 등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대응하는 학습 형태로 정의된다(Simonson et al., 2019). 이러한 학습 방식은 성인 학습자 및 직무 중심의 전문

직중 종사자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자기주도성, 자율성, 그리고 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계속교육의 중요한 실행 전략 중 하나이다(Kim et al, 2015; Jarvis, 200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연수는 동영상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하이브리드 학습(Hybrid learning), 하이플렉스(HyFlex) 학습 등으로 다변화되며 학습자의 몰입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Beatty, 2019; Leslie et al., 2020). 이중, 하이플렉스 학습은 대면 및 비대면 학습을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학습 생태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격연수의 성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교수자의 교수역량과 전문성, 콘텐츠의 질,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설계, 그리고 기술 지원 체계의 구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Park et al., 2020). 이 가운데 학습자 몰입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의 질은 교육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Hodges et al., 2020), 참여를 유도하는 설계와 구조화된 피드백 체계는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Allen, & Seaman, 2013; Zhang, Qian, & Chen, 2024).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 학습의 지속성과 심리적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en, & Bidjerano, 2009; Hockridge, & Bower, 2023).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격연수는 다양한 운영과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콘텐츠의 질 관리,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 실시간 상호작용 설계, 디지털 접근 환경의 격차, 학습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an, & Koo, 2004; Lee et al., 2009; Kop, 2011; Conradie, 2014; Syukri, & Rosyad, 2025). 또한 전통 수행자 집단인 승려의 경우, 일반 성인 학습자와는 달리 종교적 정체성, 수행 중심의 가치관, 공동체적 삶의 방식, 그리고 학습 동기 등의 구조가 상이하므로, 기술 도입만으로는 교육적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승려원격연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수행자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설계가 요구된다. 이는 정보의 전달과 사유를 자극하는 명상 중심의 콘텐츠, 불교철학과 윤리적 탐구를 포함한 심화 학습,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해석하는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 기반의 상호작용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료 수행자 간의 경험 공유, 실시간 질의응답, 정진을 독려하는 온라인 승가 공동체 환경 조성 등이 그 예이다. 셋째, 교수자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 설계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체계 또한 함께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승려원격연수의 질적 제고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여, 수행자 집단의 고유성과 불교 교육의 철학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교수설계 원칙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조계종단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 전문

가의 체계적 양성, 디지털 콘텐츠의 질적 표준화, 상호작용 중심의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구축, 교육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등이 추진될 때, 원격연수는 비정규적 형태에서 정규적 체계로 이행하며 수행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천적 계속교육의 모델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haiyadet, Piriya-surawong, & Wannapiroon, 2024; Jovini, Surya, & Utami, 2024).

3. 전문가 계속교육(CPE) 관점에서 본 승려원격연수의 교육적 의미

전문가 계속교육(CPE)은 전문가들이 직무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참여하는 지속적 학습 활동으로, 직업적 정체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raut, 1994; Jarvis, 1995; Hagedoorn, Koopman, & de Bruijn, 2025). 계속교육은 개인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 역량 함양 등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며(Evans et al., 2006), 참여 요인은 내적 동기(예: 자기효능감, 전문성 강화, 직무 만족)와 외적 동기(예: 제도적 요건, 사회적 인정, 승진·승급 요건)로 구분된다(Freeman, 2004; Boud, & Hager, 2012).

승려원격연수는 자격 취득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지도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계속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 이는 불교계에서 수행·교육의 전통과 현대적 전문성 강화 요구가 결합된 독특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승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수행과 내적 성찰의 심화, 직무 전문성 강화,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포함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내 인정, 승급과 제도적 승인, 사찰 내 지위 상승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일반적인 계속교육에서 강조되는 직무 중심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으로, 불교적 가치와 수행자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주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Goldberg et al., 2024).

따라서 승려원격연수는 의무적 직무훈련이라는 기능적 틀을 교육적·발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불교계 전문성 발전의 기반이자 불교 지도자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지속적 학습이라는 교육 및 문화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승려 학습자들이 연수의 운영 방식, 참여 경험, 교육 효과, 개선 요구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의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과제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구조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인식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승려 연수의 질적 향상과 맞춤형 연수 설계, 불교계 계속교육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양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다중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고,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MDS)을 활용하여 개선 요구 인식의 구조적 유형을 도출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3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이 운영한 법계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승려들로, 이들은 승가고시 응시 및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다. 본 조사에 앞서 2023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승려원격연수 경험자 3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구성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본 조사는 승려원격연수 경험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웹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Han, 2024)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운영실태, 만족도, 효과성 인식, 참여도, 참여의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다. 또한 예비조사(n=35)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40 이하의 요인 적재 값을 가진 문항을 제외한 후 총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KMO 표본적합도는 .610으로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과 $\chi^2 = 355.174$, $p < .001$ 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된 설문도구이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값이 .816이며, 각 요인은 만족도(.831), 운영실태(.745), 효과성 인식(.870), 참여도(.630)로,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로써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설문의 참여도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3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요인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수의 제약으로 인한 과소추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Edelsbrunner, Simonsmeier, & Schneider, 2025; Schmitt, 1996).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통상적 기준에 미

치지 못하더라도, 구조 탐색 및 문항 구성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Taber, 2018). 따라서 참여도 요인의 해석 시에는 해당 신뢰도 수치를 전제한 조건적 해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의 전제를 반영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변수	신뢰도 (Cronbach's α)	항목 수
운영실태	.745	3
만족도	.831	3
효과성	.870	3
참여도	.630	3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분석 절차, 통계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된 자료는 선행 연구(Han, 2024)에서 2023년 7월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35명 대상의 예비조사와 총 150명의 본조사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참여자 인식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승려연수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확인하였으며, 셋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넷째, 변수의 타당도 검증 및 요인구조 도출을 위해 주축 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참여자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인식 유형을 구조화하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였으며,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를 활용해 군집의 내적 응집력과 구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승려원격연수 참여자의 인식에 내재한 공통 요인을 구조화하고, 이에 기반한 연수 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선행 연구에서는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인식을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과제’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로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 요인들을 독립된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각 척도의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여 승려의 원격연수 인식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개별 요인 간 차이나 영향력 분석보다, 전체적인 인식 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반영한 분석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연구와의 분석 방식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각 척도가 단일차원(uni-dimensional)의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개별 문항 간의 세부적 차이보다, 척도 전체가 가지는 종합적 의미와 요인 구조를 분석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European Union, & Joint Research Centre, 2008). 각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Cronbach's α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분석 결과 모두 단일 요인으로 군집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결과는 승려원격연수의 주요 항목들이 어떻게 군집되고 상관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연수 참여자의 인식 속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요인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불교계 원격연수의 교육 설계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된 요인분석 절차를 기반으로 분석의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Bollen, & Lennox, 1991; Barrett, 2000; Widaman, & Helm, 2023).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틀을 통해 승려원격연수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승려원격연수의 운영실태, 만족도, 효과성 인식, 참여도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 영역은 타당한 요인 구조로 확인되었고, 체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주축 요인 추출과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24개의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KMO 측정값은 .783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Shrestha, 2021). 또한 각 요인의 대표값은 문항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 경향성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기 때문이다(Tabachnick, & Fidell, 2019).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각각의 독립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분석의 적합성 지표인 KMO 값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비조사(n=35)에서는 KMO = .610으로 나타났고, 본조사(n=150)에서는 KMO = .783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각 단계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와 변수 간 상관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Yong, & Pearce, 2013; Lorenzo-Seva, 2022). 예비조사는 척도 초안의 요인 구조 도출을 위한 탐색적

성격의 분석으로 실시되었으며, 본조사는 예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최종 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KMO 값 차이는 동일 자료의 결과 불일치가 아니며, 서로 다른 단계와 표본에 기반한 분석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의 신뢰도나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다(Jafarpoor et al., 2025).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은 각각 첫 번째 요인은 운영실태, 두 번째는 만족도, 세 번째는 효과성 인식, 네 번째는 참여도로 명명하였다. 이때, 요인 적재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가 항목의 제외나 조정 없이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한편, 개선과제 문항에 대해서는 참여자 간 인식의 구조적 차이를 정교하게 파악하고자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연수의 개선에 대한 인식은 개별 항목 차원의 단편적 반응에 국한되지 않고, 응답자 간 공통된 인식 구조와 유형화된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 간 내적 응집도와 외적 분리도의 적절성을 기반의 해석 가능성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맞춤형 연수 설계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

스님들이 인식한 승려원격연수의 운영실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3개 문항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1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긍정적인 인식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별로는 ‘운영실태8(운영 방식의 체계성)’이 평균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실태7(연수 전 안내와 접근성)’은 3.17점, ‘운영실태9(연수 중 불편 사항)’은 3.16점으로 확인되었다. 세 문항 모두 평균 3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왜도 및 첨도 값 또한 기준 범위(± 2) 내에 위치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이 결과는 스님들이 원격연수의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운영실태 문항 별 기술통계량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Items on Operational Status

문항	평균	전체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운영실태7	3.17	3.18	0.566	2	4	0.014	-0.124
운영실태8	3.2		0.543	2	4	0.102	-0.074
운영실태9	3.16		0.696	1	4	-0.711	0.972

2. 만족도에 대한 인식

만족도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2.74점으로 확인되었다. 문항별로는 ‘만족도10’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11’은 2.97점, ‘만족도12’는 2.23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12(만족의 하위 차원)’의 평균은 다소 낮은 편에 속하며, 세 문항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왜도 및 첨도는 모두 정규성 기준 내에 있으며, 만족도10과 11은 평균 3점 전후로 나타나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종합하면, 스님들은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만족도 문항별 기술통계량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Items on Satisfaction

문항	평균	전체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만족도10	3.0	2.74	0.624	1	4	-0.504	1.273
만족도11	2.97		0.777	1	4	-0.65	0.41
만족도12	2.23		0.763	1	4	0.311	-0.115

3. 참여도에 대한 인식

참여도에 대한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2.5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참여도16’이 평균 2.57점, ‘참여도17’은 평균 2.76점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참여도18’은 평균 2.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문항 모두 3점 이하로, 전반적인 참여도 인식 수준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참여도17’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높아, 일부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인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왜도 및 첨도 값은 모두 기준 범위(± 2) 내에 있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4> 참여도 문항별 기술통계량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Items on Participation

문항	평균	전체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참여도16	2.57	2.55	0.797	1	4	0.441	-0.61
참여도17	2.76		0.808	1	4	-0.075	-0.602
참여도18	2.31		0.759	1	4	0.352	-0.067

4. 효과성 인식에 대한 인식

효과성 문항들의 기술통계에서는 전체평균이 2.84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효과성 13’의 평균은 2.73점, ‘효과성 14’는 평균 2.76점, 그리고 ‘효과성 15’는 평균이 3.02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스님들이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효과성 문항별 기술통계량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for litems on Perceived Effectiveness

문항	평균	전체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효과성13	2.73	2.84	0.723	1	4	-0.183	-0.134
효과성14	2.76		0.73	1	4	-0.224	-0.111
효과성15	3.02		0.69	1	4	-0.523	0.664

5.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스님들의 승려원격연수의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과제 22’의 하위 항목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항목이 70.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개선과제 23’과 ‘개선과제 23-1’의 하위 항목에서는 ‘콘텐츠 수업도구’와 ‘수업선택권’, ‘전문성’ 등이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과제 24’의 하위 항목에서는 ‘학습자료제공’(40.0%)과 ‘전문성역량’(30.0%)이 중요한 개선 요구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스님들이 콘텐츠 강화와 교수자의 전문성, 그리고 교수-학습환경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개선과제 문항 별 주요 응답 항목 요약
<Table 6> Summary of Major Response Categories for Each Improvement Item

응답 항목	문항 번호	문항 하위 내용	응답비율(%)
개선과제 인식	22	다양한 콘텐츠	70.7
	23	콘텐츠 수업 도구	34.6
	23-1	수업선택권	23.4
	23-1	전문성	22.5
	24	학습자료 제공	40.0
	24	전문성 역량	30.0

6. 각 요인의 분석 결과를 통한 원격연수의 개선 방향

스님들이 인식한 승려원격연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를 독립변수로, 효과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전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25.609$, $p<.001$),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효과성 인식을 약 3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45$). 개별 요인별로는 ‘참여도’($\beta=.474$, $p<.001$)와 ‘만족도’($\beta=.294$, $p<.001$)가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원격연수 참여 경험의 많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연수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운영실태’($p=.37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격연수 개선 시 운영 구조의 정비보다 실제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와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경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7> 효과성 인식 예측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7> Regression Results Predicting Perceived Effectiveness

변수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값	유의확률(p)
운영실태평균	-0.085	0.096	-0.065	-0.886	0.377
만족도평균	0.331	0.08	0.294	4.113	0.0
참여도평균	0.481	0.072	0.474	6.674	0.0

7.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스님들의 성별에 따른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운영실태, 참여도, 효과성 인식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족도에서는 비구스님($M=2.82$)보다 비구니스님($M=2.64$)의 평균이 통계적

<표 8> 성별에 따른 인식 수준 차이(독립표본 t-검정 결과)
<Table 8>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Dimensions (independent t-test)

변수	남성평균	여성평균	t값	p값
운영실태 평균	3.19	3.15	0.5	0.621
만족도 평균	2.82	2.64	2.01	0.046
참여도 평균	2.62	2.46	1.53	0.129
효과성 평균	2.88	2.79	0.87	0.386

으로 유의미하게 낮게($t=2.01$, $p<.05$)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간 차이는 향후, 심층적인 해석과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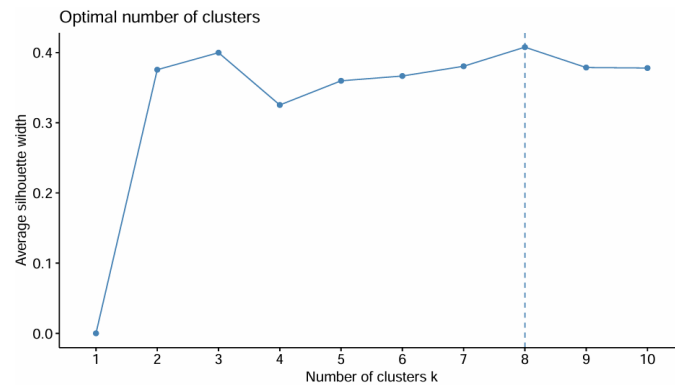
8. 개선 요구 인식의 구조적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개선과제 응답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연수 전략 수립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R프로그램 기반의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적용하였다. 먼저, 응답 패턴의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실루엣 계수를 활용하였다. 실루엣 계수는 동일 군집 내의 응집도(cohesion)와 군집 간의 분리도(separation)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로, 군집의 질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분석 결과,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군집 수가 다섯일 때 실루엣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콘텐츠 중심형, 전문성 중시형, 시스템 기반형, 소통·평가 강조형, 그리고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나타내는 복합 수요형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스님들의 개선 요구 응답이 다섯 개로 구별되는 응답 패턴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는 개선과제의 문항들이 스님들의 인식 구조를 구분 짓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며, 사용된 척도와 요인이 응답자의 인식 차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측정 도구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행연구의 개선과제 항목은 군집 간 응답 패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적 일관성과 분류 타당성을 확보한 도구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군집 별 유형화는 실제 연수 개선 전략 수립에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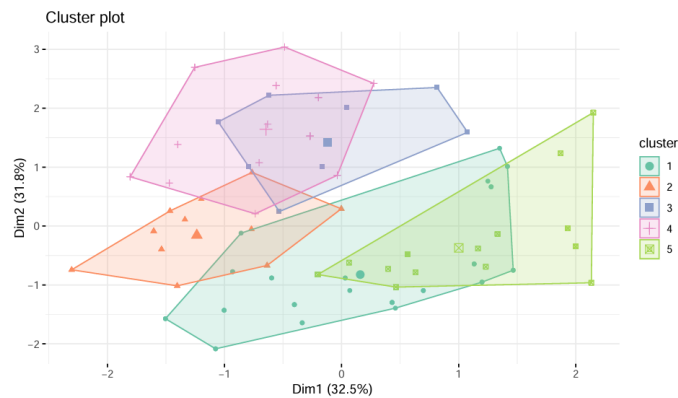
또한 군집 간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차원척도법(MDS)을 활용하여 군집 간 유사성과 차이를 2차원 공간에 시각화하였다. MDS는 고차원의 거리 기반 유사성을 저차원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응답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동일 군집에 속한 응답자들은 시각화된 공간상에서 서로 밀집되어 나타났으며, 군집 간의 공간적 분리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도출된 군집 구성이 실제 인식 구조의 차원에서 뚜렷하게 구분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응답자들의 개선 요구는 개별적 특성에 의한 산발적 응답이라기보다, 일정한 구조적 특성과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유형별 접근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군집은 콘텐츠 다양성과 학습자료 제공에 높은 요구를 보인 반면, 다른 군집은 강사의 전문성이나 교수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 패턴의 구조적 차이는 군집 간 인식 유형의 독립성을 시사하며, 연수 프로그램 개선에 있어 일괄적인 개선안 제시보다는 군집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림 1] 실루엣 계수 기반 최적 군집 수 결정

[Figure 1] Optimal Number of Clusters Based on Silhouette Coefficient



[그림 2] MDS기반 군집 시각화 결과

[Figure 2] Cluster Visualization Based on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유형화하기 위해, 관련 주관식 문항에 의미 있는 응답을 제공한 연구참여자 중 40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유의미한 응답’이란 의무감이나 형식적 또는 단답형 응답이 아닌, 내용적 완결성과 분석을 위한 적합성을 갖춘 서술형 응답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군집화에 필요한 주제 구조의 도출과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전체 응답자 내에서 개선 요구 인식의 이질성을 탐색하고, 승려원격연수의 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군집 수 결정은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군집 수를 두 개에서 열 개까지 비교한 결과 다섯개 군집에서 평균 실루엣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최적 군집 수로 다섯개의 군집을 채택하였다(Rousseeuw, 1987; Dalmajjer, Nord, & Astle,

2022). 이는 실루엣 계수가 군집 내 응집도와 군집 간 분리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로서,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군집 수 결정의 신뢰도 높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 기준은 실루엣 계수가 0.50을 초과 할 경우 ‘수용 가능’, 0.70을 초과 할 경우 ‘우수’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군집 수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널리 적용되고 있다(Du, Li, & Shao, 2024; Chahuán-Jiménez et al., 2025).

따라서 각 군집의 사례 수는 군집 1: 12명, 군집 2: 9명, 군집 3: 7명, 군집 4: 5명, 군집 5: 7명으로 분포되었으며, 분석 목적과 정성적 응답 기반의 군집 유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사례 수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다차원척도법(MDS)을 활용한 2차원 시각화 결과, 동일 군집에 속한 응답자들의 공간적 밀집도는 높게 나타났고, 군집 간 경계도 분명하게 나타나 군집 구조의 타당성을 시각적으로 검증하였다. 각 군집의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값 차이를 비교한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 = 7.32, p < .001$), 군집 간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분석을 통한 인식 유형화가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군집 별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등 주요 요인 간의 응답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단일하거나 획일적인 개선 방향이 아닌 수요자 맞춤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일부 군집은 연수 내용과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참여 의지나 효과성 인식은 낮게 나타나는 등, 요인 간 비대칭 구조가 관찰되었다. 이는 연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설계

<표 9> 승려 연구 참여자 군집별 요인 점수 및 응답 특성 요약
<Table 9> Cluster-wise Summary of Factor Scores and
Respons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Monastic Training Participants

군집	평균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주요 응답 특성 요약
군집 1		3.8	3.6	3.9	연수 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수행자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집단
군집 2		3.2	3.0	3.1	연수 내용에 대한 기본적 수용은 있으나, 일상 수행 및 실천과의 연결성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 반응을 보인 집단
군집 3		2.9	2.5	2.6	연수 내용, 방식, 효과 전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수동적 학습 태도와 낮은 내적 동기가 반영된 집단
군집 4		3.5	3.3	3.4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이거나, 행정 절차와 전달 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난 집단
군집 5		2.7	2.8	2.5	연수가 승가 고시를 위한 형식 절차로 인식되어 참여 동기가 낮고, 연수의 본질적 효과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집단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9>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섯 개의 집단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의 평균과 주요 응답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연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부터 연수의 의무성에 대한 비판과 낮은 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집단까지, 이질적인 인식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승려 연수 참여자의 인식 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며, 맞춤형 연수 설계 및 운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9.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한 승려원격연수의 질적 개선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의 분석 결과, 승려원격연수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도’와 ‘만족도’였으며, ‘운영실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원격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 구조나 절차의 정비보다, 학습자의 몰입과 내적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 중심의 교수-학습 설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도와 참여도는 효과성 인식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연수 참여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정이 연수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만족도는 교육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수행적 자기이해, 교리의 내면화, 연수 내용의 실천 가능성과 같은 총체적 인식에 기반하며, 이는 불교 승려 집단의 종교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계된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승려원격연수는 자신의 수행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교리의 내면화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수행적 자기이해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승려원격연수의 콘텐츠는 정보 전달 중심의 강의식 구성을 포함하면서, 불교 교리에 기반한 심화 성찰형 콘텐츠, 수행 일지 작성, 명상 실습과 피드백 공유형 프로그램 등 수행 중심 학습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도가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그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조계종 승려원격연수는 특정 법계 승품이나 승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의무 참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참여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내적 동기나 자발성보다 제도에 따른 외재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참여도에 대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학습자의 몰입 정도나 교육 효과를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의 동기 유형, 정서적 관여 수준, 성찰적 참여의 질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승려 교육에서 ‘참여’를 수행자의 내면적 성찰과 자각을 촉진하는 전환적 학습 행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학문적으로 의의가 크다.

셋째, 스님들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콘텐츠의 다양성’, ‘교수자의 전문성’, ‘학습자료

제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원격연수가 단편적이고 일 방향적임을 반영한다. 또한, 현재 승려원격연수가 수행자의 실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달 중심의 구조를 지양하며, 수행 연차, 법계, 연령, 디지털 활용역량 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경로 설정과 교수자의 온라인 교수법 및 불교 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연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이 가능한 학습 경험을 설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수행 경험의 깊이와 교육을 위한 기술 간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실천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교적 지혜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수행 가능한 학습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기술의 수용과 온라인상 수행의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를 함께 성찰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행 배경을 지닌 승려 학습자들이 자율적·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원격연수의 재구성은 보완의 수준에 한정하지 않고, 불교 원격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핵심 전략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Bauer, 2024).

넷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승려들은 연수 참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팬데믹 이후 등장한 하이플렉스(HyFlex) 연수모델이 승려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이플렉스 모델은 동영상 강의, 실시간 상호작용, 과제 기반 성찰 활동을 혼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승려 개개인의 생활양식과 수행환경에 맞는 유연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ockorny et al., 2024).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플렉스 모델은 기술 중심의 비대면 연수에서 발생하는 참여 단절과 교육적 몰입 저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수행자가 자신만의 공간과 일상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수행의 내면 지향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시간 소통과 공동 참여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하이플렉스 모델은 일반 학습자에게도 유용한 방식이지만, 승려의 경우 수행과 일상, 공동체와 내면적 고요, 자율성과 규율이 긴밀히 얽혀 있는 독특한 삶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 방식의 선택보다, 수행자의 존재 방식에 부합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수행 중심의 생활양식과 지역적 분산성, 사찰의 일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하이플렉스 모델은 승려 교육의 지속성과 몰입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승려연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하이플렉스 승려연수 모델은 전통적인 집합형 연수의 공간적·형식적 경계를 확장하고, 개별 수행과 공동체를 통한 배움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불교 수행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도 내면 수양의 지속성과 공동 수행의 연결성을 포괄하는 교육설계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니스님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차나 디지털 역량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구조적인 요인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Beliatte, Liu, & Rakthin, 2025). 비구와 비구니는 동일한 승려연수 과정을 이수하지만, 연수 내용의 구성이나 사례, 교수자의 성비, 상호작용 방식 등이 암묵적으로 비구 중심의 수행 맥락에 기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Park, 2025). 이러한 구성은 비구니 수행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몰입과 소속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프로그램 만족도의 문제가 아닌, 종단 내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 및 교육 설계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비대칭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종단 내 관계망과 제도적 지위의 격차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행의 감수성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원격 콘텐츠가 정보 중심의 전달에 치우쳐 있을 경우, 정서적 몰입이나 실행 중심 참여를 중시하는 여성 수행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Lima das Chagas, & Muñoz-García, 2023). 이러한 해석은 성별에 따른 차이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승려연수 과정이 다양한 수행 주체의 정체성과 감수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은 승려원격연수가 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불교 지도자로서의 수행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교육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교계 계속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이 승려원격연수가 어떤 질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제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승려원격연수 제도는 평생교육을 포괄하여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유연하고 맞춤형 교수-학습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적 함의는 프로그램 개선뿐 아니라 불교계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구조를 분석하고,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실태, 만족도, 참여도, 효과성 인식, 개선과제 등 다섯 개 영역을 중심으로 설문문을 구성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빈도분석, 군집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도와 만족도는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참여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자발적 몰입에 따른 효과라기보다,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연수 참여의 성격이 반영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참여의 질적 수준은 참여자의 동기, 몰입 정도, 수행적 성찰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정밀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정량적 수치 이상의 분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개선과제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는 응답자들이 보인 반응이 단일 항목 중심의 분산된 만족도 평가가 아닌, 내재된 인식 구조와 요구 유형에 따라 구분 가능한 체계를 형성함을 시사한다. 다섯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된 분석은 연수 참여자의 요구와 수용 방식이 수행 경력, 디지털 활용 역량, 법제 제도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확일적인 승려원격연수 설계가 아닌, 학습자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승려원격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정보나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의미 형성과 정체성 확인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불교 교육의 핵심인 수행과 실천의 통합적 학습 구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승려원격연수가 자격 이수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수행과 교육, 디지털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속교육 체제로 정립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횡단적 설계로 인해 시간에 따른 변화나 장기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참여도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인식 수준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제도적 의무 참여의 영향이 일부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 동기, 정서적 관여, 수행 태도 등 보다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 정성적 연구와의 혼합설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승려원격연수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불교계 교육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설계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llen, I. E., & Seaman, J. (2013). *Changing Course: Ten Years of Tracking Onlin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Wellesley, MA: Babson Survey Research Group.
- An, T. H. (2021). The Role and Alternatives of Monastic Colleges (Traditional Gangwon). *The Journal of Buddhism and Society*, 13(1), 115-153.
- Barrett, G. B. (2000).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Understanding R Squared and R Squared. *Mathematics Teacher*, 93(3), 230-234.
- Bauer, J. (2024). "Religious Education for All 2.0": The Hamburg Approach of Shared Religious Education. *Religions*, 15(8), 916.
- Beatty, B. J. (2019). *Hybrid-Flexible Course Design: Implementing Student-directed Hybrid Classes*. Provo, UT: EdTech Books.
- Beliatte, M., Liu, Y., & Rakthin, C. (2025). Navigating Possibilities: The Evolving Roles of Buddhist Nuns (Mae Chee) in Contemporary Thailand. *Journal of Dhamma for Life*,

- 31(2), 166-185.
- Beop-in. (2010). Monastic Education Should Communicate with Society and Align with History. *Buddhist Review*, (42). Seoul: Manhae Thought and Practice Society.
- Bockorny, K. M., Giannavola, T. M., Mathew, S., & Walters, H. D. (2024). Effective Engagement Etrategies in HyFlex Modality Based on Iintrinsic Motivation in Students.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25(3), 455-472.
- Boil. (2020). *AI Buddhism*. Seoul: Dam & Books.
- Bollen, K., & Lennox, R. (1991). Conventional Wisdom on Measurement: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10(2), 305.
- Chahuán-Jiménez, K., Lara-Yergues, E., Garrido-Araya, D., Salum-Alvarado, E., Hurtado-Arenas, P., & Rubilar-Torrealba, R. (2025). Cluster Analysis of Digital Competencies Among Professors in Higher Education. In *Frontiers in Education*, 10, p. 1499856. Frontiers.
- Chaiyadet, M., Piriyaawong, P., & Wannapiroon, P. (2024). Ubiquitous Buddhism Learning Ecosystem Model.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17(6), 105-117.
- Cho, Y., & Park, J. (2021).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Religious Professionals: Buddhist Monastics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56(2), 89-112.
- Conradie, P. W. (2014). Supporting Self-Directed Learning by Connectivism and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4(3), 254-259.
- Dalmajer, E. S., Nord, C. L., & Astle, D. E. (2022). Statistical Power for Cluster Analysis. *BMC Bioinformatics*, 23(1), 205.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
- Edelsbrunner, P. A., Simonsmeier, B. A., & Schneider, M. (2025). The Cronbach's Alpha of Domain-Specific Knowledge Tests Before and After Learning: A Meta-Analysis of Published Studi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7(1), 1-43.
- Education Cente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7). *Training Education*. Seoul: Education Team, Jogye Order Education Center.
- Education Cente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21). *Training Education*. Seoul: Education Team, Jogye Order Education Center.
- Education Cente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22). *Training Education*. Seoul: Education Team, Jogye Order Education Center.

- Eraut, M. (1994). *Develop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e*. London, England: Routledge.
- European Commission. (2001). *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European Union, & Joint Research Centre.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 Evans, L., Abbott, I., & Turnbull, M. (2006). *Develop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e*. London, England: Routledge.
- Freeman, R. (2004). *Planning and Implementing Assessment*. London, England: RoutledgeFalmer.
- Goldberg, R., Laurie, R. B., Lindberg, D. C., Zhang, Z., Yangchen, T., & Wallace, B. A. (2024). Engaging Science Across Cultures: Building a Research Community of Buddhist Monastics and Undergraduate and Faculty Mentors. *Discover Education*, 3(1), 74.
- Hagedoorn, M., Koopman, M., & de Bruijn, E. (2025). Understanding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Vocational Teachers.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1-19.
- Han, B. R., & Koo, J. M. (2004). A Study on Components of Distance Teacher Training Model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Industry Association*, 5(4), 517-530.
- Hobhouse, N. S. (2024). Traditional Tibetan Buddhist Monastic Education and Its Contemporary Adaptations Since 1959. *Religion Compass*, 18(9), e70000.
- Hockridge, D., & Bower, M. (2023). Learning Design for Holistic Student Formation. *Distance Education*, 44(2), 324-341.
- Hodges, C., Moore, S., Lockee, B., Trust, T., & Bond, A. (2020). The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Remote Teaching and Online Learning. *EDUCAUSE Review*, 27.
- Illeris, K. (2007). *How We Learn: Learning and Non-Learning in School and Beyond*. London, England: Routledge.
- Jafarpour, F., Mazaheri Tehrani, M. A., Ghanbari, S., & Fathabadi, J. (2025).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for Iranian Adolescent Students. *The Journal of New Thoughts on Education*, 21(1), 93-110.
- Jarvis, P. (1995).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nd ed.). London, England: Routledge.
- Jo, K. R. (2018). The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formed Jogye Order and the Direction of Monastic Education. *Seonhak*, 50, 9-40.
- Johnson, I. (2002). The Application of Buddhist Principles to Lifelong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2), 99-114.

- Jovini, J., Surya, J., & Utami, S. (2024). Buddhist Higher Learning Horizon and Its Relation to Global Trends: The Trajectory of Global Buddhist Pedagogy. *Journal Paedagogy*, 11(2), 276-287.
- Kim, H. S., & Yoo, S. B. (2016). Analysis of Learner Characteristics Affecting Participation in Distance Teacher Training.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17(3), 437-459.
- Kim, H. S., Kim, H. J., Yoo, S. B., Ok, J. H., & Ryu, J. S. (2015). A Performance Analysis Study on In-service Training by the Institute of Remote Education.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Report.
- Kop, R. (2011). The Challenges to Connectivist Learning on Open Online Networks: Learning Experiences During a Massive Open Online Cours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2(3), 19-38.
- Lee, D. J., Im, C. I., & Lim, J. H. (2009). *Theory of Distance Education*.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Lee, E. A. (2020a). *On-site Report on Producing Online Monastic Training Courses*. Available online at: <http://m.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0619> (accessed January 18, 2023).
- Lee, H. S. (2009). The Meaning of Lifelong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Studies*, 13(1), 37-59.
- Leslie, H., Cramer, E., & Sheard, J. (2020). HyFlex Learning as a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17(5), 1-12.
- Lima das Chagas, F. A., & Muñoz-García, A. (2023). Examining the Influence of Meaning in Life and Religion/Spirituality 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A Comprehensive Analysis. *Religions*, 14(12), 1508.
- Lorenzo-Seva, U. (2022). SOLOMON: A Method for Splitting a Sample into Equivalent Subsamples in Factor Analysis. *Behavior Research Methods*, 54(6), 2665-2677.
- Pansa, B., Chantimachaiamorn, C., Paengkamhag, W., Japh, P. V., Sriutumporn, P. R., Kittiwachiro, P. S., Pholboon, S. C., & Pattarakiatin, P. V. (2022).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nglish Communication Skill for the Monks and Novices. *Journal of Legal Entity Management and Local Innovation*, 8(12), 158-173.
- Park, B. S. (2015). The Religious Educational Character and Tasks of Buddhist Pedagogy: Retrospect and Prospect of 20 years of Religious Education Studies.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Studies*, 48, 1-14.
- Park, J. (2025). Reshaping Gendered Boundaries: Buddhist Women's Monastic Experience in

- Korean Buddhism. *Religions*, 16(2), 214.
- Park, S. Y. (1995). The Academic Character of Buddhist Pedagog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1), 35-59.
- Schmitt, N. (1996). Uses and Abuses of Coefficient Alpha.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50.
- Shea, P., & Bidjerano, T. (2009). Community of Inqui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Foster Epistemic Engagement and “Cognitive Presence” in Online Education. *Computers & Education*, 52(3), 543-553.
- Shin, M. H. (2020). A Study on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93, 347-373.
- Shrestha, N. (2021). Factor Analysis as a Tol for Surve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9(1), 4-11.
- Simonson, M., Smaldino, S., Albright, M., & Zvacek, S. (2019). *Teaching and Learning at a Distance: Foundations of Distance Education* (7th ed.).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 Syukri, M. D. A., & Rosyad, A. (2025). Integrating Modern Technology in Islamic Religious Edu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eachers. *The Journal of Academic Science*, 2(4), 1148-1156.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1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7th ed.). Boston, MA: Pearson.
- Taber, K. S. (2018). The use of Cronbach’s Alpha When Developing and Reporting Research Instruments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8, 1273-1296.
- Wenger, E. (1999).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daman, K. F., & Helm, J. L. (202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G. J. Hancock, R. O. Mueller, & L. M. Stapleton (Eds.), *The Reviewer’s Guide to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2nd ed., pp. 33-44). New York: Routledge.
- Yong, A. G., & Pearce, S. (2013). A Beginner’s Guide to Factor Analysis: Focusing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9(2), 79-94.
- Zhang, X., Qian, W., & Chen, C. (2024, December). The Effect of Digital Technology Usage on Higher Vocational Student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Learning Experience and Learning Engagement. In *Frontiers in Education*, 9, p. 1508119. Frontiers Media

SA.

- 이은아 (2020b). 조계종 교육원, 온라인 승려연수 준비. Online available at <http://m.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0297>(accessed 18 January 2023).
(Translated in English) Lee, E. A. (2020b). Jogye Order Education Center Prepares for Online Monastic Training. Available online at <http://m.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0297> (accessed January 18, 2023).
- 지안 (2013). 종단 법계제도의 의미와 개선방안. 교육원 세미나자료.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Online available at <https://cafe.daum.net/zee-an/TKpV/1> (Translated in English Ji-an. (2013). The Meaning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Dharma Rank System. Seminar Materials. Education Cente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vailable online at <https://cafe.daum.net/zee-an/TKpV/1>